

“우리의 DB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DB산업의 당면과제 및 해결방안

—내창업/한국무역시장정보 사장—

근래 DB산업을 일컬어 「정보산업의 꽃이다, 혹은 핵심이다」라는 말을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사, 이용자 사이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말은 곧 DB가 정보유통에 최적의 도구이며 또한 DB산업 자체가 범 국가적·사회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DB산업 발전에 따라 PC, 모뎀 등 단말기 시장에 대한 수요확대와 정보통신망등 정보산업발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듯 DB산업이 정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면에 자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유아단계에 있다고 하여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DB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 그 뒤를 맹 추격하고 있는 일본의 발전과정을 살펴 볼때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50년대 후반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비영리 기관이 주도하여 DB산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그후 통계국, 노동통계국, 교육자원정보센터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에게 각 기관별로 기술 이전 및 DB의 배치와 판매가 위임됨에 따라 발전기를 맞이하면서 민간주도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산업 초기에는 일본과학기술센터(JICST), 일본 특허정보센터(JPATIC)등 공공기관과 일본경제신문사(NEEDS)를 중심으로 착수되

어 발전되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1984년 일본DB진흥센터의 설립과 1987년 총무청, 통산성, 경제기획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데이터를 마크네틱데이터 형태로 민간에게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미국에 비해 국가차원에서의 착수시기가 늦은 점으로 인해 산업규모면에서 1/7 정도의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6년 한국경제신문의 경제정보, 열림세무정보의 세무정보 및 기업정보·생활정보서비스가 주류를 이루면서 민간 DB산업의 초기과정을 형성 하였으며, 1990년 이후 초창기에 설립된 몇몇 민간 DB업체의 도산이 있었으나, 노동부·특허청·경제기획원·총무처 등 국가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이 독자적 DB서비스를 실시하는 형태로 현재를 맞이하면서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이나 일본등은 국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DB산업이 발전되는 과정을 거친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민간 주도형과 국가주도형이 혼재되어 DB산업의 주체나 육성방향등이 모호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면은 DB산업 육성을 위하여는 국가기관이 자체적으로 DB구축과 서비스를 수행하기 보다는 정부보유 데이터를 민간업체에 제공하거나 용역등을 통해 민간업체가 이를 상품화하여 유통업

체인 VAN을 통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질때 DB업체가 활성화된다는 점이다. 이에 덧붙여 우리나라 DB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는 수요확산을 위한 전략수립, 민간DB/IP업체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양질의 DB구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등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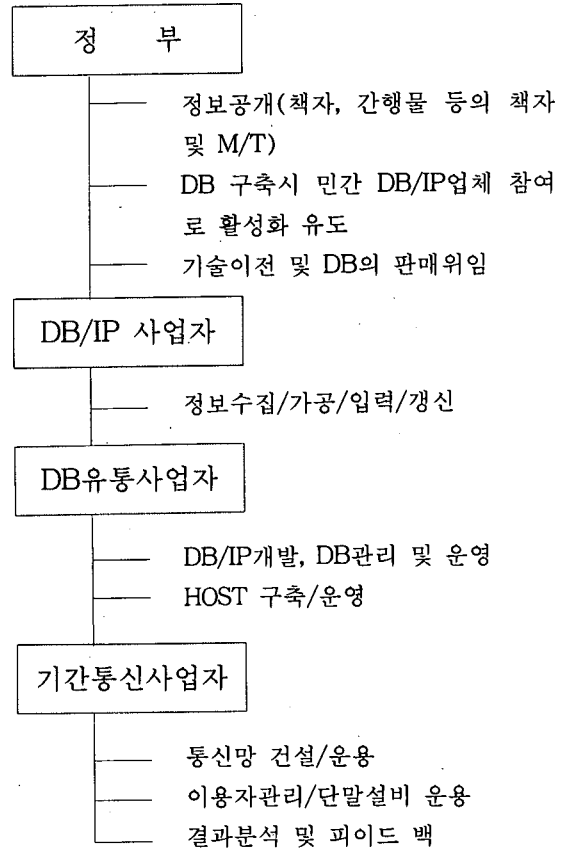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보면 1994년 1월 정보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앞서 정보이용에 대한 사회적 체제 및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확산과 프랑스의 경우처럼 공용단말기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 등 대국민차원에서 종합적인 수요확대전략이 필요하며, 정부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DB구축 및 유통에 대한 역할분담과 이를 조정하는 추진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DB구축에 소요되는 투자비용에 비해 회수기간이 장기적인 산업임을 감안하여 세제·금융상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DB를 담보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DB를 지적 재산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 DB/IP업체가 양질의 DB구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보유 「정보공개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것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 DB/IP사업자, DB유통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져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정보공개(정부간행물 등 책자 및 M/T포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DB구축시 민간업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 기술이전 및 DB의 판매위임 역할을 주로 수행하며,

<DB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분담>



DB/IP 사업자는 정보수집 및 가공, 갱신, DB유통사업자는 DB/IP 개발과 DB관리 및 운영, HOST 구축 및 운영, 기간통신 사업자는 통신망의 건설과 운영, 이용과 관리 및 단말설비 운용, 결과분석 및 피이드백 등의 역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할분담 등 여러가지 선행과정과 산학연관이 DB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때 DB의 꽃이 활짝 필 것이라 생각하면서 DB사업을 어렵게 해 나가는 입장에서 느낀점을 짚은 글이나마 제안하고 싶다.

“우리의 DB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한순 / 콘틀 실장

요즘 우리자신과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혼란과 커다란 변화의 물줄기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될 때가 많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요즈음과 같은 대변혁의 시기는 결코 흔치 않았고, 우리시대에 이러한 변혁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엄청난 책임의식을 느끼게 하는 역사적인 대변혁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는 정보화사회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보화사회라는 말이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많이 피력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보의 유통과 보존을 위한 도구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자주 거론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묵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것이 한가지 있다. 그것은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용어의 意味를 정확하게 認知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네 정보산업의 앞날은 결코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보의 양이나 질만이 문제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유통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PC통신(주)의 'HiTEL'이나

(주)데이콤의 '천리안'을 살펴볼 때, 과연 진정한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라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선뜻 답을 하기가 애매하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한 이용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버스가 지난 뒤에 손 흔드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혹자들은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이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보의 질이나 또는 요금문제, 또는 사용자층이 아직 확대되지 않았다고 역설하는 편이다. 물론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성패요인중에는 정보의 질적인 수준이나 또는 정보의 양적 부족, 그리고 사용요금의 적합성등이 일반 사용자들의 측면에서 볼때 정보이용에 접근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아직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모뎀이나 통신용 프로그램등은 너무나 생소하고, 또한 어렵게 설치를 하여 연결을 시도해도 연결이 끊어지는 전화선의 결함, 아직은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사용자들에게 충족을 줄수 없건만 부과되는 요금이 과다한 점, 또한 전화요금이 일반 음성전화요금과 동일시 적용되기 때문에 전화요금, 접속요금, 데이

터베이스 검색요금 등 3가지 요금이 부과되는 비현실적인 요금구조가 커다란 문제로 일반 사용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자들은 사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정보의 변경주기를 스스로 어겨서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서, 어렵게 정보를 찾은 사용자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어 다시는 그 정보를 검색하지 않도록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

정보의 수용욕구는 항상 존재해

앞서 지적한 사항들이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중요한 암적요소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나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보다 더 커다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컴퓨터 댓수는 약200만대를 넘어섰고, 한국통신에서는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기도하다.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 좀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에게 편하다고 생각이 들면 워드프로세서를 복사하거나, 또는 구입을 해서 자신이 구한 소프트웨어를 좀더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책을 사보고 학원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 그리고 만약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이익이나 편리함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단지 4-5만원하는 모뎀을 장착하여 정보통신의 세계로 입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문제점이 과연 무엇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시급한 대처방안의 하나는 컴퓨터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출발

물론 나의 짧은 식견이므로 하나의 의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피력해 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정보화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정보를 담고 있는 도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새로운 도구라는 점을 누구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라는 도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원초적인 도구는 컴퓨터라는 점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컴퓨터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컴퓨터의 능력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면 좀 더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우는 도구들은 단지 지금까지의 통신 수단이었던 인쇄 매체의 연장선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지 절대 컴퓨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100% 이해하여, 이를 좀더 완벽하게 사용하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산업이 아직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말하면, 현재까지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방대한 자료의 입력을 통해서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보존 기능을 이용한 방법과 조금 진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 시스템 정도가 현재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핵심기술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는 무작정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DB들은 1차산업적인 DB에 해당

내가 지난 91년도에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주관하는 「데이터베이스목록」 작성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 조사된 약 250여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니 전부 다 기존 인쇄매체에 발행된 자료들을 입력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내가 나름대로 설정한 “데이터베이스산업 분류기준”으로 볼 때, 그 중 1차 산업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내가 설정한 “데이터베이스산업 분류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차산업 : 기존 인쇄 매체의 내용을 입력하여 대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
- * 2차산업 : 입력된 자료를 가공하여, 자료를 정보로 만들어 제공하는 형태
- * 3차산업 : 1차, 2차 산업을 통해 제공된 정보중에 행위를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본 정보의 이용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즉 1차산업이라면 산업공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농업/어업/임업등의 경우에 해당 할 것이다. 물론 1차산업도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네 정보 산업에 있어서 그 핵심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일종의 ‘정보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산업적인 요소를 지닌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는 점은 엄청나게 개탄할 일이다.

현대사회는 분명히 자본주의 사회이며, 기업은 반드시 수익이 보장될 때 비로소 사업을 시작한다는 점은 누구나 아는 상식에 속한다. 즉 달같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빨리 모색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대처방안의 한가지는 바로 컴퓨터라는 도구에 대한 좀더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된다. 어찌보면 이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변수를 내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정보통신업계에 근무하는 이들의 엄청난 연구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의 정보통신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한가지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물론 나의 의견이 꼭 개선안으로서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시도될 때 비로소 새로운 진정한 통신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고 한가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정보통신문화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PC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통한 여러가지 노력들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절실하다.

연관정보검색(Hyper-Text) 기법 도입을

그러면, 본인이 평소 생각해왔던 개선안을 피력하고자 한다. 현재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연관정보의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점인데, 또한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것은 기존 미디어의 가장 불편한 점 중에 한가지였던 것으로 만약 이러한 불편함을 뉴미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에게 정보통신의 편리함을 좀더 이해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되리라 본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이 바로 “하이퍼 텍스트”기

법이라고 불리우는 방법이 아닐까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럼 이러한 “하이퍼 텍스트” 기법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우리가 “운명교향곡”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찾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본 음악의 작곡자가 베토벤이라고 나올 것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베토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면 다시 책을 넘겨서 해당내용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그 당시와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싶다면 다시금 역사책을 뒤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운명교향곡”을 듣고 싶다면 음악감상실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WINDOW를 이용하여 연관된 해당정보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나중에 ISDN이 연결된다면 음악도 PC를 이용하여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가 별개로 떨어져 있다면 기존 미디어인 인쇄매체보다 여러가지 면에서 불편하지만 만약 각 정보를 연관검색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면 정보를 좀더 완벽하게 알아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우편번호 데이터베이스나 버스노선 데이터베이스를 전혀 부가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정보로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고객관리나 약속관리와 연관이 된다면 엄청난 가치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연관정보검색기법이 구현된 데이터베이스가 비로소 부가가치를 높이는 정보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것이고, 또한 기존의 미디어가 구현하지 못했던 점을 구현함으로써 진정한 뉴미디어로서의 가치를 인정받

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의 가공작업을 통하여 자료를 정보로 만드는 정보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를 앞에서 밝힌 정보산업의 단계적 측면에서 본다면 2차 산업적인 구조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기법을 적용한다면 초기에는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체정보끼리의 연관을 시키고, 그 다음에 관련 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관을 시켜 나간다면 정보의 양이 많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입장에서 무척 많은 방법으로 정보를 좀더 완벽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가 활성화 된다면 서로의 취약점이 보강됨으로서 데이터베이스산업을 위한 또 한번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 측면에서도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존의 미디어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이 바로 이러한 색다른 기법의 좀더 적극적인 도입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중차대한 데이터베이스산업의 부흥을 위한 해결책으로 충족 될 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새로운 시도만이 현재 낙후된 우리나라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렇게 새로운 시도들을 꾸준히 실행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아 한다는 것은 수십번, 수백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정보산업에서도 마치 과거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방법만 또다시 강조하는 우를 범할 지 아닐지는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지 않을까?

“우리의 DB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한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육성책 마련을

이은경/월간정보통신시대 기자

국내 DB산업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보유 DB의 부족, DB서비스와 DB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투자회수의 곤란, 해외 DB에 대한 의존도 심화, DB관련 기술의 취약, 정책 담당 및 추진기관의 역할 취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DB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P들의 적극적인 DB개발 및 영업 등의 활동이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많다.

DB산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가장 절실히 바라는 부분은 자금지원과 DB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다. 현재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DB산업이 제조업으로 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DB산업이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이나 세제, 행정적인 지원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에 수차례 제조업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또한 DB산업 종사자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목말라 한다. 이는 DB산업 특성상 초기 투자가 많은데 비해 회임기간이 긴 것

이 IP들에게는 자금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고, 저가의 정보사용료와 통신요금이 다른 요금에 비해 비싼 것도 IP들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정보를 업데이트시키거나 사용자들이 원하는 DB를 제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매년 대동소이한 육성책 DB산업 문제점 해결책 못돼

정부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DB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정보사회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각종 육성책을 내놓는다. 많은 IP들은 올해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내용이 없는가 관심있게 관찰하지만 지난해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씁쓸한 뒤맛을 느낄 뿐이다.

체신부가 올해 발표한 DB산업 육성책을 살펴보면 공공 DB의 공동활용 촉진, DB등록제 추진, DB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단체 육성, DB산업 장기 종합계획 수립 등이다. 이의 실천방안으로는 정

부의 공공기관 보유 DB중 공개 가능한 DB를 공개하며, DB의 적극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1000만대 보급사업과 공공 DB개발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제작 유통되는 DB의 등록관리를 철저히 해 DB의 이중제작 방지 및 DB유통 활성화를 꾀하며, 이미 설립한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를 DB관련 전문기관으로 육성, DB/IP사업자의 체계적 육성, 관련법령 제·개정 등 환경정비 사업을 펼친다는 것이다.

체신부의 육성정책은 공공 DB개발 등 몇몇 항목만이 추가됐을 뿐 DB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답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까지 각종 육성책을 내놓았던 상공부나 과학기술처의 경우, 올해는 아예 이렇다할 DB육성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그나마 체신부의 DB산업 육성책에 기대를 해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어쨌든 해마다 내놓는 정부의 DB산업 육성책이 전시효과만을 노리는 육성책이 아니라 DB종사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DB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가지라도 실천가능한 방안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육성자금지원받기 하늘에 별따기
부처 이권개입으로 지원 업체 극소수**

IP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금압박을 어느정도 해소시키기 위해 체신부가 정보통신육성자금을 조성, 올부터 지원한다. 상공부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생산기술연구원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각종 DB진흥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금을 IP가 지원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지금까지 IP가 정부의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예는 극히 드물다. 매년 10억 정도의 DB육성자금을 책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액수도 적을 뿐더러 몇몇 업체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돼 왔다. 정보사용자들이 원하는 DB를 구축하려는 IP보다는 부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IP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돼 왔다. 따라서 정작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IP들은 뒤전으로 밀려난 채 특정업체만 지원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나마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원업체가 담보능력과 전년도 매출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DB 진흥자금은 지원자금으로서의 제몫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 DB육성이라는 전시효과만을 누려온 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년간 DB진흥기금으로 총 22억원을 책정했으나 이중 6억6000만원만 지원됐고, 200여개나 되는 DB업체중 단 5개 기업만이 자금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많은 IP가 담보능력이 없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금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산업중에서 소프트웨어 산업보다도 DB산업이 훨씬 뒷전에 밀려나 있는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DB 중요성 인식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결코 DB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하이텔 단말기 보급사업이 아무런 성과없이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하이텔 단말기가 보급되면 DB사용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했으나 단말기 보급 자체가 서울 등 대도시 위주로 보급됐으며, 그나마 보급한 단말기 조차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

는 단말기 사업보다 더 우선돼야 할 사항이 DB구축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같은 근시안적 육성계획을 과감히 청산하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DB산업 육성계획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DB구축으로 IP사업 영역 축소
주관부처 지정으로 육성 일원화해야**

정부의 DB육성계획은 말 뿐이라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의 경우 정부에서 용역을 주는 등 일거리를 만들면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DB산업은 오히려 IP의 일을 빼앗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부터 공공 DB개발을 통해 DB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또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정보를 손쉽게 DB화함으로써 IP들의 사업을 막고 있는 경우도 많다.

얼마전 한국 PC통신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정보가 좋은 예이다. 국세청의 세무정보는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DB화 한 것으로 세무정보를 구축한 열림 세무정보나 삼일회계법인 등의 막대한 자금투자 등과는 매우 대조적인 DB구축이다. 더욱이 국세청 세무정보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유료제공을 하고 있는 다른 세무정보DB 구축업체들에 타격을 주게 돼 IP육성을 통한 DB산업 발전이라는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는 DB제작을 철저히 감독해 이중 제작을 막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국세청의 DB구축은 이에 적용이 안되는 사항

인지 따져볼 일이다. 정부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DB화하는 예는 비단 국세청의 세무정보뿐만은 아니다. 최근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정보를 DB화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 IP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스스로 DB를 구축할 것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IP들이 양질의 DB를 구축할 수 있는풍토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IP업체가 양질의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IP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IP가 신경쓰지 못하는 DB홍보 부분이다. IP는 양질의 DB를 구축하기에도 어렵고 구축해놓은 DB를 팔면서 현상유지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특히 영업부문이 다른 산업에 비해 어렵는데 정부는 IP업체들이 미처 신경쓰지 못하는 DB의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면 DB이용마인드가 부족한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는 물론 IP에게도 적잖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DB산업 육성이 각 부처별, 기관별로 분산되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각 부처별 영역 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관부서를 정하고 서로 협조한다면 상호 중복투자 등의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열가지 육성책보다는 한가지 실천할 수 있는 육성방안이 더 절실한 때이다.